

다문화부부간 개인적 특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장 진 경(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신 유 경(금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임팀장)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Paired Data를 통해 결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는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부부적응에 나타내는 조절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다문화부부의 건강한 관계적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5년 내외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부부 293쌍(586명)이다. 자료 수집은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다문화아내들을 위하여 본국의 언어로 번안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및 빈도파악을 위해 척도화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 갈등대처방식과 부부적응 간의 성별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들 간의 상호작용항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절적 다중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개방성은 다문화남편과 아내의 부부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공통된 성격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성격특성 중 외향성·친화성·신경성은 다문화남편의 부부적응을 유의미하게 증감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아내의 부부적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다문화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은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넷째, 다문화아내의 성격특성들은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상호작용하여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다문화남편의 성격특성들은 본인의 갈등대처방식 및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상호작용하여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부부의 관계에서 부부간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의 독립적 영향뿐만 아니라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족 내 한국인 남편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다문화아내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미래의 건강한 다문화부부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아내의 노력과 더불어 다문화남편의 가정 내 역할과 부부로서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다문화남편과 아내, 모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나 부부상담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